

“첨단산업분야 = 대학경쟁력”...‘BBC분야’ 국내최고 특성화대학 향해 질주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 수험생 76,264명 지원, 전국 대학중 지원수기준 2위 라는 놀라운 행보가 정시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천대가 입시 등에서 괄목할 성과를 내는 것은 대학이 집중하고 있는 미래를 이끌 첨단산업 분야 인재육성 전략과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상위 10%인 S등급을 받는 등 대학혁신성과가 주목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가천대는 BBC(Bio, Battery, Chips)특성화를 추진해 바이오로직스, 이차전지, 반도체,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분야 학과를 선제적으로 신설하고 계약학과 확대, 교육방법 혁신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첨단산업분야 교육 및 연구강화를 위해 하버드, MIT, 스탠퍼드 등 명문대학과 테슬라, 오라클, 애플,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 순회, 미국 현지교수 채용설명회 개최하는 등 공격적으로 우수교수 초빙에 나섰다.



가천반도체첨단연구소에서 교수진과 연구원들이 반도체 연구를 하고 있다.

가천대 반도체대학 신설, 반도체교육 허브 부상

가천대는 올해 반도체대학을 독립단과대학으로 분류하고 반도체교육 특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핵심 반도체 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전자공학전공(120명)을 기반으로 2021학년도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를 설립하고△반도체공학전공(2022학년도)△반도체설계전공(2023학년도)△차세대반도체설계전공(2024학년도)을 신설하는 등 반도체분야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학사구조를 개편했다. 반도체대학은 반도체·전자공학부(전자공학전공, 반도체공학전공, 차세대반도체설계전공)와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반도체설계학과로 입학정원 330명 규모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을 이끌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산업의 기술적 기반 강화와 혁신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IT융합대학, 공과대학, 바이오나노대학 3개대학에 소속된 전기공학과 등 반도체관련 학과 학생과 타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디그리, 융합부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등 융합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성남시와 공동으로 반도체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재교육과정인 팹리스반도체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중심 학기수업과 6학점 실습제, 무박3일 해커톤, 현직자 토크 등 경험중심의 교육방법 혁신으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

가천대는 반도체설계/공정 분야에 △반도체인프라구축사업 △부처협업형사업(시스템반도체) △성남팹리스아카데미 △조기취업형계약학과 △디스플레이인력양성사업 △첨단산업인재양성부트캠프 사업(반도체분야) 수주를 통해 정부로부터 운영능력을 입증 받았으며 관련사업 추진으로 반도체 설계/공정 분야의 풍부한 인프라를 갖췄다. 반도체공정실습실, 가천첨단반도체연구소, 전공심화실습실, 소재분석용 Core Facility, 설계전용실습실 등 최신 실험·실습 교육 시설을 보유·운영하며 실험실습환경을 갖췄으며 클린룸도 3개 보유하고 있다. 반도체특화를 위한 교수진도 탄탄하다. 반도체분야 전임교원은 총 37명으로 반도체 핵심 및 응용분야를 다루는 반도체 전공관련학과 그룹의 전임교원 14명과 반도체 기초·기반 및 주변 분야를 다루는 11개 반도체 관련학과 그룹 23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외 명문대학 학위·연구 경력 및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LG디스플레이, LG화학, SIEMENS 등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체 제직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가천대는 2026년까지 반도체 교원만 100여명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로직스 등 첨단산업 학부정원 150명 순수증원, 사립대 1위

가천대가 지난 4월 발표한 교육부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정원배정 결과, 수도권대학 중 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 많은 150명 순증원에 됐다. 전체 사립대에서는 1위다. 수도권 전체 순증원원은 10개대학 19개학과(전공) 817명으로 150명 증원은 전체 순증의 18.4%에 해당한다. 증원인원은 혁신신약분야 바이오로직스학과 50명, SW·통신분야 금융·빅데이터학부 50명, 에너지신소재분야 화공생명배터리공학부 50명으로 수시모집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대학의 입학 총원은 수도권 과밀화 우려와 지방 반발 등을 이유로 증원을 규제해 왔으나 교육부가 국가 핵심산업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 공급을 위해 첨단학과의 입학정원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다. 새로 신설되는 바이오로직스 학과는 캡스 배후 산업단지인 송도바이오클러스터와 연계해 바이오로직스 분야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 약대학 연구 시설, 이길여 암·당뇨연구원, 가천대 길병원, 가천의료기기융합센터 등 가천대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이다.

가천대는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교육부로부터 반도체 등 첨단분야 대학원 학과 신설 및 정원 130명 증원을 승인받았다.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증원이 승인된 24개 대학중 성균관대, 서울사립대에 이어 증원인원수 3위다. 증원규모는 대학원 석사과정 5개전공, 117명과 박사과정 1개전공 13명이다. 석사과정 반도체전공이 59명, 인공지능과 미래형자동차전공이 각 16명, 배터리공학과 바이오헬스의공학전공이 각 13명 늘었다. 박사과정 반도체전공도 신설돼 13명의 정원을 승인받았다.

가천대, 카카오펀터프라이즈와 ‘클라우드공학’ 계약학과 국내최초 신설

올해부터 신입생 30명 선발, 수시 135대 1 기록, 4년 전액장학금 파격

가천대는 클라우드 혁신전문가 육성을 위해 올해 카카오펀터프라이즈와 국내 대학 최초로 계약학과를 개설했다. 가천대와 카카오펀터프라이즈는 학부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인 클라우드공학과를 IT융합대학에 공동으로 개설, 2024학년도 첫 신입생 30명을 선발하는데 올 수시모집에서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다. 계약기간은 6년으로 2027년 중간평가를 거쳐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학생들에게는 4년 동안의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졸업 후 카카오펀터프라이즈 우선 채용을 전제로 한다.

두 기관이 클라우드 계약학과를 설치하게 된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산업이 급속성장하고 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컴퓨팅 환경이 클라우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나 대학에서 클라우드를 가르치는 곳은 사실상 전무하고 인재 확보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 기관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사(CSP), 협회나 공공기관, 대학과 학원 등에 산재해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기업수요 맞춤형 표준 교육체계로 특화해 커리큘럼을 촘촘하게 짜고 현장 맞춤형 프로젝트와 핵심역량별 심화교육을 할 계획이다. 클라우드공학과 커리큘럼과 교수재용에 카카오펀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전문가도 공동으로 참여해 현장감을 높인다.

가천대는 이와함께 지난 4월 가천대 길병원, 카카오펀터프라이즈, 카카오헬스케어와 함께 경기도 카카오펀터프라이즈에서 바이오 데이터분석 플랫폼 기반 차세대 디지털병원 및 대학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가천대는 4차협약에 기반해 카카오펀터프라이즈와 학사시스템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길병원과 함께 의료 데이터 기반의 연구 분석 환경 구성, 연구용 AI 모델 생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길여 총장은 “앞으로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교육 및 연구가 곧 대학경쟁력”이라며 “우수교수와 첨단연구·실습장비를 기반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된 판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지리적 잇점을 활용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클라우드 등 첨단산업분야를 이끌어갈 미래 핵심 인재를 키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천대와 카카오펀터프라이즈가 '고등교육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024학년도 가천대 정시모집 안내

정시 1484명 선발 ... 인문·자연계열 수능 100%

가천대는 2024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1,484명을 선발한다. 각 군별 모집인원으로는 가군이 452명, 나군이 384명이며 다군이 648명으로 가장 많다. 정시 원서접수는 내년 1월 3일부터 6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합격자 발표는 수능위주 전형이 내년 1월 16일, 실기전형은 내년 2월 5일 예정이다.

인문, 자연계열 학과들은 전년도 같이 수능 100%로 총 1,400명을 선발한다.

연기예술학과(연출), 미술·디자인학부, 체육학부는 수능 60%, 실기 40%로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미등록, 등록포기인원을 정시모집에 포함해 선발한다. 수능 4개영역 반영 일반전형에서는 1,400명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의 인문, 자연계열(의예과, 한의예과, 약학과, 클라우드공학과 제외)전체 모집단위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1과목)를 반영한다. 한

국사는 필수다. 반영영역 중 국어와 수학 2개 영역 반영비율은 우수한 영역순으로 35%, 25%를 반영한다.

〈단표 참조〉

전년도 다르게 자유전공, 자연계열(의예과, 약학과, 클라우드공학과 제외)은 수학(기하, 미적분), 과학탐구에 각각 3% 가산점을 부여한다. 의예과, 약학과 클라우드공학과는 국어, 수학(기하, 미적분), 영어, 과학탐구(2과목)를 반영하며 한의예과는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탐구(2과목)를 반영한다. 전년도 다르게 한의예과는 수학(기하, 미적분), 과학탐구(2과목 평균)에 각각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예체능계열은 수능영역중 국어50%와 영어50%를 반영한다. 조기취업형계약학과는 수시모집 미충원인원에 한해 1단계는 서류 100%(5배수), 2단계는 1단계 성적 50%와 면접 50%로 선발한다.

계열	모집단위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가산점	한국사
		국어	수학 기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영어	탐구 사회, 과학		
인문	전체 모집단위	우수한 영역 순 35, 25			20	20 (1과목)	-	필수
	자유전공	우수한 영역 순 35, 25			20	20 (1과목)	수학(기하, 미적분) 3%, 과학 3%	
자연	전체 모집단위	우수한 영역 순 35, 25			20	20 (1과목)	-	
	의예과, 약학과, 클라우드공학과	25	30	-	20	25 (2과목)	-	
	한의예과	25	30		20	25 (2과목)	수학(기하, 미적분) 3%, 과학(2과목 평균) 3%	
예체능	전체 모집단위	50	-		50	-	-	

2024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 2024. 01. 03(수) ~ 06(토) 18:00 입학상담 1577-0067